

5.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수능 특강 p.132)

단락 분석

(1단락)

①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혐오는 본래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②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혐오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본질이 된다. ③이와 같이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거쳐 형성된 혐오는, 사회적 인간관계로 그 방향이 바뀌어 특정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오염 또는 전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④이러한 혐오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특정사회 구성원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마련이다.

- ① 혐오라는 감정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 **혐오**에 대해 설명해줄 건가봐.
- ② ①문장에서 얘기했던 **신체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들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에서 **혐오**라는 감정이 생긴대. 예시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더 쉽게 이해될 거야. 예를 들어 쥐로 인해 흑사병에 걸렸던 경험이 있다던지 혹은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목격했던(**감각 경험에 대한 생리적 반응**) 사람은 이러한 질병을 유발하는 쥐가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 하게 될거야(**인지적 평가**). 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쥐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지.
- ③ 이렇게 형성된 **혐오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적용**된대. 특정 사회 구성원을 혐오함으로써 그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 ④ '~때문에' 라는 **인과 표현**은 체크! 혐오는 보통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해 생길 수밖에 없대(원인). 낯설다는 것은 자주 보기 힘든 특성을 보인다는 뜻이니까 결국 사회적 소수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 결론이 나와. 예시를 또 떠올려보자.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혐오는 유대인 혐오였어. 실제로 당시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당시 1100만이던 유럽 유대인들 중 600만명을 죽이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벌였어. 당시 유대인들이 비주류였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불편했던 감정이 있기에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정권 장악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거지.

(2단락)

①누스바움은 생리 심리학적 반응인 ‘개인감정으로서의 혐오’와 그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 전가된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를 각각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구분하였다. ②원초적 혐오는 죽음 및 부패와 같이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 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본능적으로 발현되는데, 이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③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전가한 것이다. ④혐오가 정당화되려면 혐오의 대상에게서 초래된 두려움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투사적 혐오는 현실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다. ⑤이러한 측면에서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고 피력하였다.

- ① **마사 누스바움**(미국 철학자)은 혐오를 원초적 혐오와 투사(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을 반영함)적 혐오로 구분했다.
- ② **원초적 혐오**는 **본능**적으로 발현돼. 유해한 물질에 대해 회피할 수 있게끔 인간의 생존 본능이 우리의 뇌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지. 그런데 투사적 혐오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 이제 투사적 혐오가 왜 문제인지 알려주겠지?
- ③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하여 혐오를 **전가**하는 거래. 실제로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독일 사회를 썩먹는 쥐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었어. 그러다가 쥐처럼 박멸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거야.
- ④ 투사적 혐오는 **정당화 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의 내용이 **사실로 뒷받침 될 수 없는** 두려움에서 근거한대.
- ⑤ 그래서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 나오는 원초적 혐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투사적 혐오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투사적 혐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3단락)

① 혐오 표현은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정당화 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 ②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혐오의 고취·선동 메시지를 제3자인 청중들에게 전달하여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 등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 ③ 이러한 해악을 이유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입장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의 위험성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든다. ④ 이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든다.

- ① 1, 2단락에서는 혐오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3단락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 흐름 놓치지 말자. 지금 문장은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기도 해.
- ②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 1) 혐오 대상에게 해악을 끼침 2) 제3자들을 선동해 혐오 대상인 사회 내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폭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
- ③ 혐오 표현의 문제가 심각하니 **법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나봐. 주장이 있을 때는 **근거**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문제 풀 때 덜 헤매겠지? 법적 규제 근거 1) 혐오 표현 자체의 위험성 2)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
- ④ **규제하면 안된다는 반대 주장**도 제시하고 있어. 반대 근거 1) 혐오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함 2) 규제하지 않아야 오히려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없어짐. 두 번째 근거는 확 와닿지는 않지? 아마도 하지 말라고 강제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규제하는 것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나봐. 여튼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4단락)

① 혐오 표현의 규제 방식은 법적 규제와 형성적 규제로 나뉜다. ② 법적 규제는 형사 범죄화, 민사 구제, 차별 시정 등과 같이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이며, 형성적 규제는 국가 기관 또는 시민 사회가 앞장 서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③ 이 가운데 더 이상적인 방법은 형성적 규제라 할 수 있다. ④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항 표현(counter-speech)'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혐오 표현이 남용될 수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⑤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그 희생자에 대한 연대의 언행과 같은 대항 표현은, 방관과 묵인으로 힘을 얻는 혐오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자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라 할 수 있다.

- ① 이번 단락에서는 혐오 표현의 **규제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할 건가봐.
- ② **법적 규제**는 혐오 표현을 쓴 사람을 벌주는 **형사 범죄화**, 혐오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민사 구제**, 혐오로 인해 생긴 차별을 고치는 **차별 시정** 등이 있나봐. **형성적 규제**는 혐오 표현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데에 주력하는 규제 방식이네.
- ③ 당연히 형성적 규제가 더 이상적이겠지?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도 지킬 수 있고, 이미 일어난 혐오 표현에 대해 사후(일이 일어난 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혐오 표현 자체가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왜 3단락에서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4단락에서 규제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하는지 **글의 흐름**을 읽었니?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형성적 규제로 혐오 표현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다고 여길 것 같아!
- ④ 왜 형성적 규제가 더 이상적인 건지 글쓴이가 설명해주고 있어. 이번 지문은 꽤 친절한 것 같아. **'대항 표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네?
- ⑤ 대항 표현이 뭔지 정의해주고 있어. **(B인 A) 정의**는 항상 기억하자. 선지에서 '대항 표현'을 '혐오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언행'이라는 말로 **동어치환**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 대응 방식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인 의무래. 우리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자!(요새 혐오 표현이 너무 많아...)

(5단락)

①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혐오 표현에 직면한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통해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②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양하는 미국에 비해,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③이 가운데 규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독일의 혐오 표현에 관한 법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④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독일 법원은 불가변적 특성 또는 집단 외부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을 이유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된 경우, 즉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하였다면 집단 모욕죄를 인정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⑤또한 위와 같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인터넷망에 게시될 경우 유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 선동죄로 판단하며, 해당 인터넷망이 해외의 것이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자국 내에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도 존재한다.

- ① 4단락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근거로 삼을 만한 얘기들을 했으니, 이번엔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술을 시작할 건가봐. **소수자가 과연 다수를 상대로 당당하게 대항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의심)를 제시하고 있어.
- ② 현학적인(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어려운) 표현에 넘어가지 마. **미국**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혐오 표현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법적 규제를 지양**(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하는 것이고,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는 법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법적 규제를 **적극적인 규제**라고 은근슬쩍 바꿔 표현했어.
- ③ **독일** 예시를 더 들고 있어. 홀로코스트란 아까 내가 예시로 들었던 역사상 최악의 혐오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말해(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구약 시대에, 짐승을 통째로 태워 제물로 바친 제사]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 '소아' [대재앙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라는 표현을 쓴대). 독일은 과거의 나치 독일이 자행했던 끔찍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거 나치가 했던 혐오 표현과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할 만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뉴스에서도 독일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에 대해서 비슷한 과오를 범한 일본의 태도와 비교해서 종종 보도하고는 하는데 기억나지?
- ④ 문장이 복잡하고 정신없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독일 법원은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경우 중에서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집단의 구성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마련이라고 **1단락**에서 제시했었어)을 모욕했다면 바로 **집단 모욕죄**로 벌을 준대.
- ⑤ 혐오 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게시되면 **대중 선동죄**로 처벌하고, 해외 사이트로 가서 혐오 표현을 쓰는 경우에도 여지없이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으로 처벌하려 한대. 정말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네!

(6단락)

①한국 사회 또한 최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 표현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관련 법령의 제정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②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혐오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① 마지막 단락이야. 이번엔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최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만드는) 속도도 더디대.
- ② 글쓴이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혐오 표현의 사용이 더욱 늘어날테니, 얼른 **법적으로 규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 글은 전반적으로 설명문의 성격을 띠지만, 글쓴이의 주장도 같이 들어가 있네. 독서 지문이기는 하지만 만약 수능에 연계되어 출제된다면 **작문이나 매체 지문으로 활용되어 출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자세하게 같이 공부했으니 꼭 연계로 나와서 기분 좋게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

구조도 정리

혐오	원초적 혐오	- 신체 생리학적 + 심리적 반응 - 본능적으로 발현 -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 될 수 있는 두려움에 근거함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투사적 혐오	-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 -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짐 - 정당화 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함 -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
혐오 표현	정의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정당화 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
	문제점	1)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 2) 제3자를 선동해 혐오 대상인 사회 내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폭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
혐오 규제 방식	법적 규제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
	형성적 규제	국가 기관 또는 시민 사회가 앞장 서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법적 규제보다 이상적인 방식
혐오 표현 법적 규제 찬반	찬성 근거	1) 혐오 표현 자체의 위험성 2)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 3) 형성적 규제(대항 표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
	반대 근거	1) 혐오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함 2) 규제하지 않아야 오히려 혐오표현이 자연스럽게 없어짐.
법적 규제에 대한 각국의 상황	미국	표현의 자유 중시 → 법적 규제 지양
	독일, 캐나다, 영국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규제
	우리 나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조속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 시급

배경지식 더하기

대항 표현(Counter speech)

혐오 표현이 방관과 묵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항 표현을 행할 수 있어. 대항 표현은 이의 제기를 통해 혐오 표현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혐오 표현 발화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지. 대항 표현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연대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어.

정치학자 캐서린 젤버가 제시한 대항 표현의 방식을 세 가지 알려줄게.

- 1) 혐오 표현이 묘사하고 있는 불평등의 사실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맞받아치기
- 2) 혐오 표현이 지지하는 차별이라는 규범이나 가치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반차별이라는 규범 및 가치에 의지하여 되받아치기
- 3) 화자의 내면적인 주관 세계, 즉 진정성에 호소함으로써 대응하기